



즉시 배포용: 2021년 12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진주만 추모 제80주년을 맞아 조기 게양 지시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진주만(Pearl Harbor) 추모 제 80주년을 맞아 내일 12월 7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정부 건물에 조기를 게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80년 전, 진주만 공습으로 2,400명의 군인 및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그레이티스트 제너레이션(Greatest Generation)은 제2차 대전(World War Two) 중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부름에 답했으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워야 한다는 요청에 답하고 있습니다. 진주만 추모 제8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봉사한 부모와 조부모를 기리고, 치명적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우리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부스터 샷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